

잡아함 111. 유루경

날짜: 8월 20th, 2024

출처: <http://www.dhamma.kr/wp/?p=17740>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마구라산에 계시었다. 때에 라다라는 시자 비구는 해질녘에 선정에서 깨어나 부처님께 나가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한 쪽에 앉아 여쭈었다.

“세존께서는 유루(有漏)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것을 유루라고 하며, 어떤 것을 유루의 멸함이라 하나이까.”

부처님께서는 라다에게 말씀하시었다.

“잘 물었다. 너를 위해 설명하리라. 이른바 유루란 무엇인가. 어리석고 무식한 범부들은 물질의 모임과 물질의 멸함과 물질의 맛과 물질의 근심과 물질을 떠나기를 참다이 알지 못한다. 참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물질을 사랑하고 찬탄하며 거두어 가지고 물들어 집착한다. 물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취하고, 취하기 때문에 존재가 있으며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나고, 나기 때문에 늙음·병·죽음과 근심·슬픔·번민·괴로움이 더한다. 이리하여 순수한 큰 괴로움의 무더기가 여기서 모여 일어나나니 느낌·생각·지어감·의식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같다. 이것을 유루라 하느니라.

많이 아는 거룩한 제자들은 물질의 모임과 물질의 멸함과 물질의 맛과 물질의 근심과 물질을 떠나기를 참다이 안다. 참다이 알기 때문에 그 물질을 사랑하거나 찬탄하거나 거두어 가지거나 물들어 집착하지 않는다. 사랑하고 찬탄하며 거두어 가지고 물들어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사랑이 곧 멀하고, 사랑이 멀하면 <잡음(取)>이 멀하며, 잡음이 멀하면 <존재>가 멀하고, 존재가 멀하면 <남>이 멀하며, 남이 멀하면 늙음·병·죽음과 근심·슬픔·번민·괴로움이 멀한다. 이리하여 순수한 큰 괴로움의 무더기가 멀하나니, 느낌·생각·지어감·의식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같으니라. 이것을 여래가 말한 유루와 유루의 멸함이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이 경을 말씀하시자 라다 비구는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여 밟들어 행하였다.

본 문서는 dhamma.kr에서 수집한 내용입니다.